

## 고혈압 환자들은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혈압 약의 이름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?

이승연, 민선호, 조홍준, 이흥규\*

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가정의학교실, \*서울중앙의원

**연구 배경:** 환자가 여러 의료 기관을 이용하는 '의사 장보기' 현상이 흔한 우리나라에서 환자들이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약의 이름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 부작용이 있었던 약도 그대로 투여될 수 있고, 반대로 이전 약으로 혈압이 잘 조절되던 환자도 다시 처음부터 새롭게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. 또한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혈압 약의 이름을 알고 있는 환자들이 순응도가 높고 혈압이 더 잘 조절된다는 외국 자료가 있었지만, 우리나라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어 혈압 약 이름의 인지율과 관련 인자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.

**방법:** 2002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서울 아산 병원 가정의학과 외래 및 울산대학교 병원, 그리고 경북 경주시 안강읍에 위치한 한 개인 의원 외래에 방문하여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 총 607명 중 설문에 응답한 29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.

**결과:** 1개 이상의 고혈압 약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96명(32.8%)이었다. 여성의 인지율(39.4%)이 남자(23.6%)보다 높았다 (odds ratio [O.R], 2.69; 95% confidence interval [CI], 1.39~5.22). 초등학교 이하 교육을 받은 사람보다 고등학교 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이 4.2배 더 인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(O.R, 4.20; CI, 1.64~10.69). 또한 복용하고 있는 다른 약의 종류는 0.78배 (O.R, 0.78; [CI], 0.63~0.98)로 더 적게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최근 2회 측정된 평균 수축기 혈압은 인지군(133.2 (+/-)11.6 mmHg: mean (+/-) standard deviation[S.D])이 비인지군(141.3 (+/-) 15.5 mmHg: mean (+/-)S.D)보다 낮았으며, 이완기 혈압도 인지군(84.5 (+/-) 7.2 mmHg: mean (+/-) S.D)이 비인지군(86.8 (+/-) 9.5 mmHg: mean (+/-) S.D)보다 더 낮았다.

**결론:** 이 연구에서 고혈압 약 이름의 인지율은 낮게 나타났고, 인지율과 관련이 있는 인자는 성별과 학력, 그리고 복용중인 다른 약의 종류로 나왔다. 또한 인지군에서 혈압 조절이 더 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.

**중심단어:** 고혈압 약, 이름, 인지, 관련인자